

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나가 목포 출신이랑게 사투리는 자신있지라~”

황영희, MBC ‘왔다 장보리’서 미친 존재감

으로 주문해서 나온 것”이라며 웃었다. 그는 1969년생으로 을 해 마흔다섯에 ‘불과’하다. 20대 때부터 할머니 역을 했다는 ‘전 원일’의 김수미 이래 최고의 노인 연기가 아닐까 싶다.

“계 탄 기분이예요. 요즘엔 모두가 저를 알아봐요. 정말 기분이 좋죠. 배우 하지 말고 그렇게 반대했던 저희 엄마도 무척 좋아하세요. 태어나서 제일 큰 효도를 한 기분입니다.”

“미친 존재감”이라는 표현이 있다. 주연은 아니지만 한 장면을 나와도 시선을 확 잡아끄는 연기력을 선보이는 배우에게 네 티즌이 붙이는 찬사다.

현재 시청률 고공행진 중인 MBC TV 주말극 ‘왔다! 장보리’에서 연민정(이유리 분)의 엄마 도씨(이름은 어울리지 않게 도혜옥이지만, 극중에서도 주로 도씨라 불린다)를 연기하고 있는 배우 황영희(45·사진)가 주인공이다.

“요즘 살맛 납니다!”라며 활짝 웃은 그는 “어릴 때는 다 알아봐 주시는데 이런 건 정말 처음이에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라며 기쁨을 숨기지 않았다.

악녀 연민정의 친엄마이자 드라마의 주인공 도보리(오연서)의 계모인 도씨는 진땀을 위해서는 불구덩이에도 뛰어 들 수 있는 강한 모성애의 소유자이자, 의붓딸 도보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대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투박한 인간미가 있고, 구석구석 코믹한 면을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악녀 계모와는 노선을 달리한다. 그래서 연민정과 작당해서 나쁜 짓을 할 때는 밉지만, 도보리 생각에 남몰래 가슴을 치는 모습에서는 측은지심이 든다. ‘왔다! 장보리’의 김순옥 작가는 “황영희 씨가 도씨를 아주 잘 연기해주고 있다. 독함과 코믹함이 공존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다 되는 배우라 드라마가 산다. 앞으로 정말 잘 되길 바란다”고 극찬한 바 있다.

황영희는 “모든 게 다 때문에 들어 있다. 애드립을 하는 건 없다. 대본이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 배우들도 매회 어찌 될지 궁금해하며 기다린다”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칭찬을 작가에게 돌렸다.

도씨의 악행이 코믹하게 드러난 장면 중 하나는 도씨가 도보리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지기가 이를 막은 칫솔을 도보리의 칫솔과 바꿔치기하는 신이다. 그냥 이를 뒤야도 될 것을 황영희는 비장한 표정으로 인상을 딱 쓴 채 박박 칫솔질을 해 폭소를 안겨줬다.

황영희는 “그 장면은 PD님이 ‘차인표 씨의 분노의 칫솔질’ (과거 차인표가 드라마에서 보여줘 화제가 된 장면)을 구체적

EBS 프로그램 목록. World News Review, 세계의 눈, 2013 포스, etc.

EBS플러스1 프로그램 목록. 올림포스, 수능 특강 light, etc.

EBS플러스2 프로그램 목록. 공민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6년생, 42년생, 43년생, etc. 운세 분석.

주영훈, 외국 작곡가 측에 ‘표절의혹’ 제기

“변호사와 논의중... 해명 오면 대응할 것”



최근 인터넷에는 미국 가수 메간 트레이너의 노래 ‘올 어바웃 댓 베스’가 주영훈이 만들어 그룹 코요태가 2006년 발표한 ‘기쁨 모드’의 표절곡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기쁨 모드’의 전반부와 ‘올 어바웃 댓 베스’의 후렴구 멜로디 30초 가량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 주영훈(사진)이 미국 팝 스타의 노래가 자신이 만든 노래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작곡가 측에 해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7일 주영훈 측 관계자는 “‘올 어바웃 댓 베스’(All About That Bass)를 부른 메간 트레이너는 자사에만 참여했고 작곡은 다른 외국 작곡가가 했다고 들었다”면서 “해당 작곡가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명이 오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현재 변호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곡이 미국에서 크게 유행하는 곡이고,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간 트레이너의 이 노래는 미국 빌보드의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2위에 오른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때문에 주영훈이 공동 작곡가로 이름을 올리거나 소송을 통해 표절 사실이 인정되면 저작권료 등으로 거액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쾌한 다섯남자가 그리스로 떠난 이유는

내달 2일 KBS 2TV ‘나의 결혼 원정기’ 방영



개그맨 김국진(49), 탤런트 김승수(44)와 박광현(38), 가수 김원준(43), KBS아나운서 조항리(27) 등 다섯남자가 그리스로 ‘결혼 원정’에 나섰다.

KBS 2TV는 내달 2일 밤 11시를 시작으로, 9일과 10일 오후 8시30분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나의 결혼 원정기’를 방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작진은 “이 시대의 ‘현실남’ 다섯 명이 펼치는 웃기고 슬픈 결혼 관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선을 앞둔 ‘돌아온 싱글’인 김국진부터 20대의 조항리까지 다섯 싱글남이 누구나 사랑에 빠진다는 낭만적인 그리스 산토리니섬으로 떠나 한 여인을 두고 공개경쟁을 벌인다.

다섯 남자의 구애를 받을 주인공은 산토리니의 이아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현지 여성 요안나. 다섯 남자는 일주일간 요안나의 집에서 ‘사위 체험’을 하면서 요안나와 그녀의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경쟁을 펼친다.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이들 중 한 명이 요안나의 신랑으로 낙점돼 그리스식 웨딩을 치러보는 가상 체험까지 카메라에 담았다.

제작진은 “절절한 오빠들이 그리스로 떠나 결혼에 대한 의미와 ‘나는 과연 결혼할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유쾌한 결혼 원정기”라고 밝혔다.

연출뉴스